

하나금융그룹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은행**

GOLFZON<sup>TM</sup> Play Different과 함께하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IX

Sir Stephen Hough  
AGAT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

스티븐 허프 경  
오케스트라를 위한 바스크 환상곡 '아가타'

Edvard Grieg  
Piano Concerto,  
Op. 16, A minor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16

Sir Stephen Hough  
Piano Concerto  
'The World of Yesterday' 한국 초연

스티븐 허프 경 피아노 협주곡  
'The World of Yesterday'

Sir  
Stephen  
Hough  
Plays

피아노  
스티븐 허프 경

스티븐 허프

피아노  
협주곡

Grieg  
&  
Stephen  
Hough

지휘  
함신익

11. 22 Sat

7:30 PM

LOTTE  
CONCERT HALL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NGSAN

TSE

FST

SEBONG

GOLFZON<sup>TM</sup>  
Play Different

DSK

화광교역(주)

SYMPHONY  
SONG  
SHINIK HARM



##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 이사장

문형주

## 부이사장

안정근

## 감사

김일규

##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 2024~2025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 마스터즈 Circle

풍산

## 말리 Circle

세봉

에프에스티

티에스이

## 브람스 Circle

디에스케이

GFS

골프존

##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면사랑

세아제강

영앤진세무법인

## 베토벤 Circle

엔피코리아

최영애

장원기

송백규

## 쇼팽 Circle

문형주

안정근

다진

KNW

박선주

## 모차르트 Circle

코스모엠

김기태

서석호

신영만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 하이든 Circle

고운영

김종혁

신갑순

이근혁

계양 수치과

이숙희

김성렬

백방미

김은주

이용돈

권영성

이미영

최상욱

김종훈

김영기

한문성

김소정

박진형

유소정

박지윤

장윤정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익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Sir Stephen Hough plays  
Stephen Hough Piano Concerto 'The World of Yesterday'

스티븐 허프 경이 초연하는

## 스티븐 허프 피아노 협주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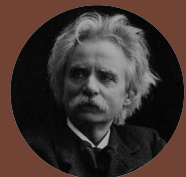
Sir  
Stephen Hough  
1961-



## AGAT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

오케스트라를 위한 바스크 환상곡 '아가타'

Edvard Grieg  
1843-1907



## Piano Concerto in A minor, Op. 16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16

- I. Allegro molto moderato ..... 적당히 빠르고 생동감 있게  
II. Adagio ..... 매우 느리게  
III. Allegro moderato molto e marcato ..... 절제된 빠르기로, 힘 있고 뚜렷하게 강조하며

피아노 스티븐 허프 경

### Intermission

Sir  
Stephen Hough  
1961-



## Piano Concerto 'The World of Yesterday' 한국초연

피아노 협주곡 'The World of Yesterday'

- I. Prelude and Cadenza ..... 전주곡과 카덴차  
II. Waltz Variations ..... 왈츠 변주곡  
III. Tarantella Appassionata ..... 타란텔라 아파시오나타

피아노 스티븐 허프 경



##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예술감독	함신익				
바이올린	박재준	박지현	박진형	강은실	김소정
	김은지	오하은	김민주	김민하	박경빈
	박시온	박주현	박지윤	성은희	장민주
	전하영	정예은	지예인	최연수	최종은
비올라	안예림	김효경	박영빈	송수민	장윤정
	홍동선	황영신			
첼로	임종현	권혜림	장지혜	정혜술	조아진
	최 영				
더블베이스	고부현	김가은	김태현	김혜린	이현지
플루트	김성찬	유민아			
피콜로	유민아	조연선			

오보에	김소정	오유정			
클라리넷	조종현	정태욱			
바순	김윤지	고경호			
호른	조종현	김효정	김보람	주혜준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트럼본	이윤호	김주형	김재원		
팀파니	한호진				
타악기	김지명	신주하	장대수		
하프	김경화				
크리에이티브 팀	신현숙	구현정	김소정	김지원	유소정
	이동훈	이수민			

\*악장 ※명단은 악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함신익은 대전시향(2001~2006)과 KBS 교향악단(2010~2012)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4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창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 유망 연주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뉴월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연주자들을 선발해 2년간 프로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은 뒤 원하는 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원들이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함께하는 동안 되도록 심오한 레퍼토리를 다루고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합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요.”

지휘자 함신익의 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애

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 아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과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지휘자로서 뿔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 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

사 심포니, 밀부록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성장의 비결은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한 연습에서 거두는 실력입니다. 저는 단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단원의 실력이 제고되면 연주의 완성도는 배로 좋아집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공연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기에 모두가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송년연주회에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베토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연 시간 내내 기립해 연주를 하기도 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언제나 특별함을 유지한다. 지휘자의 통찰력에 따른 연주자들의 열정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더 킹’ 프로젝트로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자를 위해 연주로 공헌하는 것도 심포니 송의 자량 중 하나다. 더 킹 프로젝트로 음향이 완벽하게 구성된 실내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무너뜨리며 클래식 장벽을 낮춘 결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 환경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은 더욱 특별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을 것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횟수와 퀄리티 또한 제고할 것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2025년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전부를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악이 모든 것인 함신익, 그가 심포니 송과 함께 펼칠 예술가 정신을 기대한다.



## 피아노 — 스티븐 허프

### 심포니 송(Symphony S.O.N.G)의 첫인상

지난번 첫 리허설 때부터 함께 연주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악보에 세심하게 몰입하며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탁월하고 활기찬 젊은 연주자들이었습니다. 다시 함께할 날이 몹시 기다려집니다.

### 첫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영감은 무엇이었나요?

이 얘기는 길어질 것 같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곡은 영화음악 의뢰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방향을 바꿔 피아노 협주곡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짙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성격을 지니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에 피아노 협주곡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성찰합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처럼 많은 작곡가들이 스스로 연주하기 위해 협주곡을 썼다는 전통을 염두에 두고 작업했습니다.

### 이 협주곡에서 청중이 특별히 주목하면 좋을 음악적 순간이나 주제가 있을까요?

관객 여러분이 이 작품이 시작과 끝에서 C장조로 귀결되는 하나의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강렬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서주가 점차 긴장감을 쌓으면 피아노의 카덴차가 이어지고, 이는 곧 변주가 가미된 왈츠 형식의 제2악장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악장은 격렬한 타란텔라로 마무리됩니다. 작품 전체의 모든 소재는 초반 몇 초에 등장하는 두 개의 동기에서 비롯되며, 이 동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한국에서 연주하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심포니 송과의 리허설과 멋진 서울 관객을 만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 PROFILE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현존하는 20인의 다재다능한 사람들’ 중 한 명인 스티븐 허프 경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작가로 활약하고 있다.

클래식 연주자 최초로 맥아더 펠로우십을 수상했으며, 대영제국훈장(CBE)과 음악 공로 기사 작위(2022)를 받았다. 약 70만장의 음반을 발표한 그는 여러 차례의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고, 그라모폰 상 8회와 골든 디스크상 등 국제적인 음악상을 수상했다. 작곡가로서 피아노 협주곡 The World of Yesterday를 비롯해 성가곡 Songs of Love and Loss, 현악 4중주 Les Six Rencontres 등을 발표했으며, 작가로는 회고록 Enough와 에세이집 Rough Ideas 등을 출간했다. 그는 왕립 필하모닉 협회 명예 회원, 미들 템플 명예 회원, 왕립 북부 음악원 국제 피아노 석좌를 맡고 있으며, 현재 뉴욕 줄리어드 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 Stephen Hough

## AGAT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

스티븐 허프, 오케스트라를 위한 바스크 풍의 환상곡 ‘AGATA’

이 곡은 영국 태생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겸 작가인 스티븐 앤드류 길 허프(Stephen Andrew Gill Hough, 1961~, Heswall, England)가 2018년에 쓴 관현악 작품으로 바스크 지방(Basque Country)의 전통 민요 ‘성녀 아가타 (Santa Águeda)’와 그녀의 시칠리아 이태리식 이름 ‘AGATA’를 계 이름으로 붙여 만든 “라솔라시라” 동기를 조합하여 만들어 졌다. 바스크 지방은 북부 스페인과 서북부 프랑스와의 경계를 중심으로 바스크 민족이 사는 지역을 뜻한다. 바스크 민족은 이베리아 반도(Península Ibérica, 스페인, 안도라, 지브롤터, 포르투갈)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원주민으로 독특한 문화와 언어체계를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부단히 노력중이다. 영국 서부 지역에도 많이 분포하는데 이로 인해 작곡가는 그의 유년 시절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칠리아 섬의 성녀 아가타는 3세기 경 로마 제국의 종교핍박으로 순교 당하였다가 훗날 성인으로 추대되어 로마 가톨릭 전승(傳承)에 따라 숭배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전통 민요 ‘성녀 아가타’는 바스트 국경일에 그녀의 업적을 기리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Melodic 단조 음계를 따른다.



[Figure 1. AGATA 동기]

곡은 현의 반복되는 음형 위에 여러 목관악기가 주제 민요 음절을 토막 내어 각기 다른 옥타브에서 연주하면서 시작된다. 주제의 막연한 인상이 주어지고 세 대의 비올라를 위한 짧은 푸가토가 뒤따른다. 푸가토는 ‘AGATA’ 동기와 민요 주제의 일부를 사용한다. 전체 오케스트라가 힘차게 이어지면서 낭만적인 열정을 뽐내는데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마침내 성녀 아가타 민요의 온전한 형태가 여러 대선율과 함께 연주 된다. 감정이 추슬러지고 진정되면 Txistu(바스크 전통 악기, 소프라노 리코더처럼 생겼으며 일반적으로 피콜로로 대체 연주된다.)가 등장하여 현대 화성 위에서 주제 민요를

This orchestral work was composed in 2018 by Stephen Andrew Gill Hough(b. 1961, Heswall, England), the British-born pianist, composer, and writer. The piece draws inspiration from the traditional Basque folk song Santa Águeda(‘Saint Agatha’) and from the saint’s Sicilian name ‘AGATA,’ which Hough transforms into a musical motif using the solmization syllables La-Sol-La-Ti(Si)-La(A-G-A-T-A).

The Basque Country is a region that straddles the border between northern Spain and southwestern France, home to the Basque people—an ancient indigenous population of the Iberian Peninsula (comprising Spain, Andorra, Gibraltar, and Portugal).

The Basques have preserved a distinctive language and culture and have long sought independence from Spain. Basque communities are also found in parts of western England, which may have exerted a cultural influence on Hough during his early years. Saint Agatha of Sicily, to whom the folk song is dedicated, was an early Christian martyr who suffered persecution under the Roman Empire in the 3rd century. She was later canonized and venerated in the Roman Catholic tradition. The traditional

folk song Santa Águeda, sung during Basque festivals in her honor, praises her faith and sacrifice and is written in a melodic minor mode.

The work opens with fragments of the folk melody passed among various woodwinds over a repeated string figure, giving only a distant impression of the theme. A brief fugato for three violas follows, employing both the ‘AGATA’ motif and elements of the folk tune. The full orchestra then enters with passionate Romantic intensity, leading to a powerful climax in which the Santa Águeda melody appears in its complete form, richly harmonized and interwoven with countermelodies.

As the emotion subsides, the txistu—a traditional Basque flute resembling a soprano recorder (often replaced by piccolo

연주한다. 정적이 있는 후 저음 현은 부드러운 기타(guitar) 반주를 흉내 내고 솔로 바이올린이 ‘AGATA’ 주제를 높은 음역대의 하모닉스(harmonics)에서 느리게 연주하면 Txistu는 민요 주제를 레치타티보(Recitativo, 말하는 듯 즉흥적인 형태의 연주)로 연주한다. 마지막은 처음 부분의 변주이며 곡은 현에 의해 조용히 마무리 된다.



[Figure 2. Txistu에 의한 민요 동기]

in performance)—emerges to play the folk melody against contemporary harmonies. After a moment of stillness, the lower strings gently imitate the strumming of a guitar while the solo violin presents the ‘AGATA’ motif in high harmonics. The txistu then returns in a recitativo-like passage, freely and expressively restating the folk theme. The work concludes with a quiet

variation of the opening material, fading away in the strings.

# Grieg

## Piano Concerto in A minor, Op. 16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16

그리그(Edvard Grieg)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번호 16은 낭만주의 시대 북유럽 음악의 상징적 걸작이다. 1868년 덴마크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완성된 이 작품은, 그리그의 서정적 감성과 노르웨이 민속음악의 정서가 절묘하게 융합된 곡으로 평가받는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발표된 이 협주곡은 초연 직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자주 연주되는 피아노 협주곡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 1악장 Allegro molto moderato

작품은 팀파니의 짧은 롤과 함께 피아노의 강렬한 하강 아르페지오로 시작한다. 이 인상적인 도입부는 그리그가 리스트와 슈만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신만의 색채를 확립한 대목이다. 주제는 노르웨이 민요 선율을 연상시키는 6/8 박자의 리듬으로 제시되며, 자연의 생명력과 같은 활기를 품고 있다. 피아노는 독백과 대화 사이를 오가며 오케스트라와 긴밀히 호흡하고, 제2주제에서는 그리그 특유의 따뜻하고 내성적인 정서가 흐른다. 전개부에서는 자유로운 변주와 화려한 패시지를 통해 정서의 긴장을 높이고, 재현부로 돌아오며 음악은 점차 밝은 색채로 물든다. 이 악장의 카덴차는 피아니스트의 기교와 시적 감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부분으로, 작품 전체의 정수를 보여주는 순간이다.

### 2악장 Adagio

D♭장조로 전환되며 분위기는 한층 고요하고 서정적으로 변

Edvard Grieg’s Piano Concerto in A minor, Op. 16, stands as an emblematic masterpiece of Romantic-era Nordic music. Completed in 1868 while Grieg was on holiday in Denmark, the concerto exemplifies a seamless fusion of Grieg’s lyrical sensibility with the spirit of Norwegian folk music. Premiered when the composer was just twenty-five, the work achieved immediate popularity and remains one of the most frequently performed piano concertos today.

### 1st Movement Allegro molto moderato

The work opens with a striking introduction: a brief timpani roll followed by a descending arpeggio in the piano. This opening passage presents Grieg’s inheritance of Lisztian and Schumannesque tradition while asserting his own distinctive voice. The principal theme, set in a 6/8 rhythm that recalls Norwegian folk melody, conveys a vitality akin to the pulse of nature. The piano alternates between soliloquy and dialogue, breathing in close sync with the orchestra. The second theme reveals Grieg’s characteristic warmth and introspective lyricism. In the development, the piano unfolds free variations and dazzling figurations that heighten the movement’s tension; upon return to the recapitulation, the music gradually acquires a brighter coloration. The cadenza of this movement serves as a concentrated moment in which pianistic virtuosity and poetic feeling are fused, crystallizing the concerto’s emotional core.



한다. 오보에와 현악의 따뜻한 화성 위에 피아노가 노래하듯 선율을 이어가며, 마치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속삭임처럼 느껴진다. 1악장의 걱정과 대비되는 이 악장은 작품의 정서적 중심이자 휴식의 공간이다. 그리그의 내면적 서정과 고향 노르웨이의 평온한 풍경이 겹쳐지며, 투명하고 맑은 정서가 악장 전체를 감싼다. 간결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 악장은, 음악적 정적 속에서 오히려 가장 강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3악장 Allegro moderato molto e marcato**  
마지막 악장은 민속춤 ‘할링(Halling)’을 연상시키는 강한 리듬으로 시작한다. 명확한 박자와 활기찬 에너지가 작품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피아노는 리듬의 중심을 이끌며, 오케스트라와 함께 힘찬 대화를 이어간다. 중간부에서는 서정적인 선율이 잠시 등장해 이전의 열기를 식히고, 이후 재현부에서 다시 역동적인 흐름이 되살아난다. 마지막 부분에서 조성이 A장조로 바뀌며 음악은 찬란한 빛으로 마무리된다. 힘과 기교, 그리고 따뜻한 낙관이 결합된 피날레는 그리그 음악의 정수이며, 북유럽의 자연과 인간적 정서가 함께 어우러진 승화의 순간이다.

이 협주곡은 단순한 피아노 기교의 과시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감정을 동시에 담은 서사적 작품이다. 화려하면서도 진솔한 음악 언어, 민속적 리듬과 낭만적 감성의 조화, 그리고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대화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리그는 이 작품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과 보편적 감동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북유럽 음악을 세계 무대로 이끈 결정적 발걸음을 남겼다.

# Stephen Hough

## Piano Concerto ‘The World of Yesterday’

### 스티븐 허프, 피아노 협주곡

이 20분 길이의 피아노 협주곡은 두 개의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 첫 번째 동기는 작품의 시작을 알리며,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순수한 C장조의 음으로 밝고 투명하게 연주한다.

**2nd Movement Adagio**  
The second movement shifts to D $\flat$  major and adopts a quieter, more lyrical character. Over a warm harmonic fabric spun by oboe and strings, the piano sings in an almost vocal manner, evoking the sensation of a gentle whisper in nature. Contrasting with the passion of the first movement, this Adagio functions as the concerto’s emotional center and its space of repose. Grieg’s inward lyricism and his attachment to the landscapes of Norway are fused here, producing a transparent, serene atmosphere. Though concise, the movement leaves a deep aftertaste; within its musical stillness resides the movement’s most intense feeling.

**3rd Movement Allegro moderato molto e marcato**  
The finale begins with a bold rhythmic thrust that calls to mind the Norwegian folk dance known as the halling. Its decisive meter and vigorous energy inject vivacity into the whole work. The piano takes the lead in articulating the rhythmic drive, engaging in spirited dialogue with the orchestra. A lyrical episode in the middle section temporarily cools the preceding ardor, after which the recapitulation revives the movement’s dynamic momentum. In the closing measures, the music shifts to A major, bringing a radiant, triumphant conclusion. The finale’s combination of strength, virtuosity, and optimistic warmth epitomizes Grieg’s musical essence, yielding a moment of sublimation where Nordic nature and human feeling are united.

This concerto is not merely a vehicle for pianistic display but a narrative work that captures both nature and human emotion. Its brilliant yet sincere musical language—fusing folk rhythms with Romantic sensibility—and the ideal interplay between piano and orchestra testify that Grieg demonstrated how national identity and universal feeling can coexist. Through this work, he made a decisive step in bringing Nordic music to the world stage.

This 20-minute piano concerto is based on two motives. The first of these opens the work, heard in its simplest form in violins and flutes, all white-notes, not a cloud in the sky. In bar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처럼, 온통 백색의 음으로만 이루어진 세계이다. 이어 3마디에서 클라리넷과 하프가 응답하듯 등장하며 두 번째 동기의 싹을 보여준다. 상승하는 삼화음의 사슬로 이루어진 이 동기는 훗날 왈츠의 주제가 된다. 프렐류드는 점차 화성이 풍부해지고 에너지가 더해지며 물들어 간다. 그러다 피아노가 등장해 긴 카덴차를 연주한다. 거칠고 불규칙한 리듬과 화려한 기교가 한동안 이어지다가 서서히 가라앉으면, 두 번째 동기가 느리고 달콤한 왈츠로 변한다. 어딘가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의 부드러운 감성이 스며든 듯한 순간이다. 이 부분은 곧 등장할 ‘진짜 왈츠’를 예고한다. 이어 현악이 등장해 16마디 길이의 주제를 완전한 형태로 연주하는데, 그 유혹적이고 퇴폐적인 매력이 작품의 중심을 이룬다. 왈츠 주제 위로 일곱 번의 변주가 이어진다. 이 부분에서 피아니스트는 반주자처럼 행동하며 화려한 장식으로 곡의 질감을 풍성하게 만든다. 여덟 번째 변주에서는 템포가 점점 빨라지고, 마침내 C장조로 돌아와 두 동기가 함께 춤을 추듯 어우러진다. 글로켄슈필의 반짝이는 소리가 더해지면서 음악은 더욱 화려해진다. 그리고 곧 속도가 다시 불으며 타란텔라로 돌입한다. 왈츠의 선율은 짧고 날카로운 스타카토 화음으로 압축되고, 실로폰이 첫 번째 동기를 반짝이며 비춘다. 음악은 점점 격렬해지다 갑자기 멈추고, 이어 다시 첫 번째 동기가 나타난다. 이번에는 더욱 밝은 C장조로, 팡파르와 장식적인 패시지가 더해져 찬란하게 빛난다. 감정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며 두 동기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번에는 한층 더 뜨겁고 감정적인 절정으로 이어진다. 급격한 가속이 다시 타란텔라로 몰아가고, 결국 폭발하듯 뜨거운 결말로 곡이 끝난다. 부제 ‘The World of Yesterday(어제의 세계)’는 여러 의미를 지닌다.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회고록 제목에서 따온 말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빈의 문화와 낭만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담고 있다. 동시에 작곡가에게 이 말은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장르 자체의 역사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들이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는 대표곡으로 협주곡을 썼다.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 쇼팽, 라흐마니노프, 프로코피예프, 바르토크까지 — 피아노 협주곡은 그들의 명함이자 존재 증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바로 그 ‘어제의 세계’를 되살린 음악이다.



3 clarinet and harp answer with a germ of the second motive, a chain of rising triads, also in purest C major, which will later become the Waltz. The Prelude slowly begins to blush with richer harmonies and increasing energy, until the piano enters to play an extended cadenza. After a while the energy of its ragged, splashing virtuosity dissipates and we hear the second motive as a slow, disarmingly sweet-toothed waltz - with a hint of Bill Evans perhaps. This turns out to be a premonition of the real Waltz section as the strings enter playing the 16-bar theme in its full, decadently seductive form. There follow seven variations on this waltz where the pianist is mainly accompanist, providing a plush carpet of decorative commentary. An eighth variation begins with a cranking up of tempo until, back in C major, we hear both themes waltzing together, glistening with glockenspiel. A further acceleration tumbles us into the Tarantella. Now the waltz theme is squashed into staccato chords punctuated by xylophone flahses of the first theme. The energy works itself into a frenzy of agitation, propelling the music to a sudden silence, after which we hear the first theme, back in C major but flaring with fanfares and flourishes. The music increase in emotional intensity until the two themes are heard again, now stretched to a new height of sentimental ardour. A lurch of acceleration returns us hastily to the tarantella and from there inexorably, to the frenetic, blazing conclusion of the piece. ‘The World of Yesterday’ ... a subtitle with several meanings. It is borrowed from Stefan Zweig’s eponymous memoir with its celebration of Viennese culture before the First World War : the world as it used to be; nostalgia as both literal and legend. But this title became a tag for me, representing the history of the piano concerto from itself: invented to be a touring piece for composers who were also pianists, a visiting card on the road. From Mozart, its most prolific exponent, to Beethoven, Mendelssohn, Chopin, right through to the mid-20th century’s virtuosos, Rachmaninov, Prokofiev and Bartok, to be a pianist was to write a piano concerto. A world of yesterday indeed.



Arcangelo Corelli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코렐리  
크리스마스 협주곡 제 8번 사단조, 작품번호 6

Johann Sebastian Bach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6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 248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조, 작품번호 125 '합창'

소프라노 김순영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이명현  
베이스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 The Sound of 'JOY'

12. 18 Thu  
7:30 PM LOTTE CONCERT HALL

## 송년음악회

지휘 함신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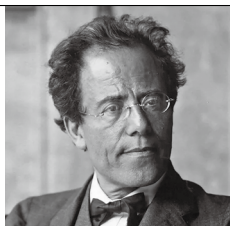


## 2026 함신익과 심포니 송 MASTERS SERIES



말리의 “부활”  
GUSTAV MAHLER  
Symphony No. 2  
‘Resurrection’

02. 07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소르그스키와 라벨  
“전람회의 그림”  
MODEST MUSSORGSKY  
Night on Bald Mountain  
MAURICE RAVEL  
Piano Concerto  
피아노, 유성호

09. 12 SAT 19:30



MODEST MUSSORGSKY,  
MAURICE RAVEL  
Pictures at an Exhibition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NIKOLAI RIMSKY-KORSAKOV  
Russian Easter Festival Overture  
FRÉDÉRIC CHOPIN  
Piano Concerto No. 1 피아노, 송은채  
NIKOLAI RIMSKY-KORSAKOV  
Scheherazade

03. 12 THU 19:30



차이코프스키  
스페셜  
PYOTR TCHAIKOVSKY  
Violin Concerto  
바이올린, 양정윤

10. 24 SAT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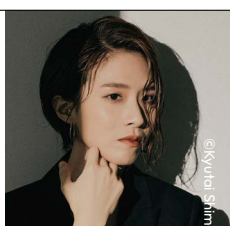


PYOTR TCHAIKOVSKY  
Symphony No. 4  
객원지휘, Darrell Ang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DMITRI SHOSTAKOVICH  
Festive Overture  
SERGEI PROKOFIEV  
Piano Concerto No. 2  
피아노, 김규연

05. 30 SAT 19:30



LUDWIG VAN BEETHOVEN  
Egmont Overture  
JOHANNES BRAHMS  
Piano Concerto No. 2  
피아노, 유영욱

JOHANNES BRAHMS  
Symphony No. 1

브람스 페스티벌

11. 16 MON 19:30



베르디 “레퀴엠”  
GIUSEPPE VERDI  
Requiem

06. 16 TUE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미선, 김선정,  
김동원, 사무엘 윤,  
부천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  
“합창교향곡”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Choral'

12. 29 TUE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미선, 김선정,  
이명현, 양준모,  
국립합창단

##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2026 시즌패스  
2026 Season Pass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조기구매 할인 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11월 30일까지 구매시	VIP석	960,000원	→	720,000원
	R석	800,000원	→	600,000원
	S석	560,000원	→	422,000원
	A석	400,000원	→	300,000원

25%

티켓 구매 요령

① 전화 구매  
02-549-0046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③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 송

12월 31일까지 구매시	VIP석	960,000원	→	768,000원
	R석	800,000원	→	640,000원
	S석	560,000원	→	448,000원
	A석	400,000원	→	320,000원

20%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A석	400,000원	→	200,000원
	B석	240,000원	→	100,000원



##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등급 ☐ R석 ☐ S석 ☐ A석

수령 방식 ☐ 현장수령(추천) ☐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 심포니 S.O.N.G 법인/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 예우
마에스트로	3억 원 이상	· 기업연주* 6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 소식 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 원 이상	· 기업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 실황 음원 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합신의 기업방문 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 광고
말러	5,000만 원 이상	· 기업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 추가 구매 티켓 10%할인 *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브루크너	2,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슈베르트	1,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베토벤	5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 원 이상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Enabling Tomorrow's Semiconductor

www.tse21.com

@life.tse

TSE



... FA & BIO분야 ...

# 글로벌종합 기술기업

이차전지장비, 디스플레이장비, 리니어시스템, 물류자동화 로봇,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대한민국 장비산업분야 및 바이오 보툴리눔독소제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GOLFZON NEWDIN GROUP





HANDIUM

# PANAMA GEISHA

## 콜드브루 커피원액 출시

‘신의커피’로 불리는 최상급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핸디엄 콜드브루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HANDIUM

핸디엄은 자체 개발 기술로 프리미엄 커피 원액을 제조하는 콜드브루 전문 브랜드입니다.



온라인 스토어 [www.handium.co.kr](http://www.handium.co.kr)

고객센터 1599-2681 (홈페이지 실시간 대화)

주요 판매처 이마트, 쿠팡, 비마트(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선물하기

HANDMADE FOR YOUR PREMIUM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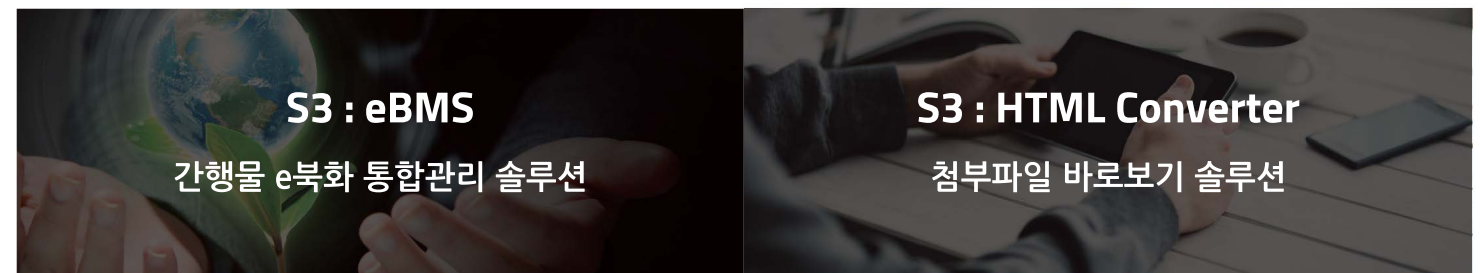
####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510(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메일문의 : shlee012@k2web.co.kr / 상담시간 : 09:00 ~ 18:00

02-575-7721